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8호 [루계 제25607호] 주제 106 (2017)년 4월 8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버섯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단위인 평양버섯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에서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버섯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평양버섯공장은 흰곰보버섯, 평나무버섯, 느타리버섯 등 여러가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버섯을 연간 1,000여t 생산할수 있는 능력이 큰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버섯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평양시교외에 공장의 위치도 품소 잡아주시였으며 강력한 설계 및 시공력량을 파견해주시였을뿐만 아니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높은 뜻을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편관단위 일군들과 군인건설자, 불적대원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2016년 10월에 연건축면적 1만 9,950여㎡에 달하는 현대적인 평양버섯공장이 훌륭히 완공되었으며 지금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전경을 훑아본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드넓은 부지에 일떠선 생산건물들과

보조건물들이 특색이 있으면서도 신뜻하고 멋있다고,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의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든다고, 평양버섯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이 지구가 더욱 환해졌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원료장, 발효장, 파종장, 배양장, 재배장, 기술준비실, 통합생산지휘실, 과학기술보급실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원료저장공정, 원료분쇄공정, 기질혼합공정들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르히 차려놓았는데 기대공들이 조종반의 탄주만 누르면 저장과 분쇄, 혼합이 자동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기질주입공정설계를 잘했다고 하시면서

기질병충을 담은 상자들이 흐르선을 타고 기질공급기에 들어가면 눈썹박탈 사이에 기질들이 가득 채워지고 운반장치에 실려 자동멸균로로 옮겨지는것이 정말 불만하다고, 자동조종반을 통하여 기질발효를 과학적으로 하고있는데 착상이 좋다고 하시였다.

파종장, 배양장들의 자동화수준도 높다고, 특히 온습도, 탄산가스농도에 따라 팽은종기와 배풍기, 가습기들이 자동적으로 동작하면서 버섯재배에 알맞는 조건을 보장할수 있도록 세배장을 잘 꾸리였다고 말씀하시였다.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 장악함에 기초하여 그에 맞게 생산을 조직하고 경영활동을 진행할수 있도록 경영정보체계, 생산관리체계, 자동조종체계를 잘 세워놓았다고 하시면서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은 결과 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평양버섯공장의 설비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재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볼수록 호모하고 힘이 난다고, 공장을 일떠세우면서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국산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버섯공장은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인력으로 충집될데가 없는 우리 나라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을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로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기여한 설계 및 시공단위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버섯재배에서도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선진적이고 실리적인 재배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문제, 버섯품종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킬데 대한 문제, 발효법으로 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충기지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 생산원가와 에베르기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현대적인 설비들을 애호관리할데 대한 문제, 버섯생산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본분을 대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평양버섯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사철 버섯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므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지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양버섯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룡악산생물공장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룡악산생물공장에 온정어린 선물을 보내주시었다.

우리 인민을 가장 신성히 떠받들어주시며 우리 조국땅위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일을 맞으며 룡악산생물공장에 물진기재들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현대의적인 생물산업용자용차들에는 공장 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맞춤형 질 좋은 생물들을 많이 보내주시기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순간도 잊지 않고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해나갈것을 바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깃들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7일 룡악산생물공장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관계부문과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안장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온갖 심혈

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룡악산생물공장에 생물산업용자용차들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온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물소 공장을 찾으면서 수도시인민들에게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생물들을 사할 때 구지 않고 공급하는데서 나오는 파열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생물산업용자용차들에 새길 마크와 그림도인까지 지도하여 주시었다고 그는 걱정도 넘쳐 말하였다.

그는 인민들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신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모임참가자들과 평양시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연설자는 공장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수도시인민들에게 생물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여 선물자용차들을 적극 애호관리하여야 함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이러 경의로본들이 있었다.

로동자들은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생물생산과 공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헌신말씀을 철저히 관철하며 자강력제일주의의기치높이 공장을 전국의 본보기 단위로 꾸러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생물산업용자용차들에 대한 정상유지, 정상관리사업을 짜고들어 마를출도 모르는 어머니당의 인민사랑을 싣고 수도의 거미줄을 누벼감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한방없는 온정이 시인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동자들은 질세위원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강원도정실의 창조자용차처럼 수명의 유순한발전, 당정책옹위권의 불길들 더욱 세차게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의로본이 재력되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 통신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 인민군 마크로병정기대회를 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경기를 통하여 마크로병들이 무적의 철마를 끌고 남반부해방전지대를 질풍노도처럼 내달리며 어떤 건투일무도 자립적으로 능숙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었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마크로병들이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파죽지세로 달려나와 무의담으로 적진을 짓뭇개버리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중국의 홍콩 방송위성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 인민군 마크로병정기대회-2017》을 지도하시면서 평크는 조선 인민군의 상징이고 무적주먹이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훈련형식과 내용, 방법을 개선하며 해마다 경기방식을 새롭게 할데 대한

문제 등 마크로병부대, 구분대의 싸움준비환상에서 나서는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경기에 참가한 마크로병들을 만나서 담화를 나누시였으며 기념사진도 찍으시었다.

중국의 신화통신, 환구망, 신방망,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프 타임스》, 영국신문 《데일리 스타》와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진국위원회, 백두산세스크로조선친선협회, 인리네트홈에서도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로씨야의 인리네트홈에서 《이르푸르크블로그스프루트, 루》와 에스나나 미스고주체사상연구구조,

나이지리아에 본부본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인리네트홈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신 소식을, 네발신문 《아르방》과 네발기자협회, 네발조선친선협회,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발기자협회, 인리네트홈에서들은 국방과학연구소로 개발한 우리 식의 태술력발동기자상분출시험을 보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솔관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연설자는 백두산절세위원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깊이 빛내어갈 불타는 마음인고 시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부타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뚫고나가면서 사적관계건공사에 충정을 다 바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일군들과 동격대원들이 짧은 기간에 전민적인 개건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며 사적관의 면모를 일신시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적관에서는 해당 단위와의 연계면제 절세위원들의 일상사적문헌들과 영상이술작품들을 새로 정중의 모시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의 투쟁자료들도 보존전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날에 평안남도혁명사적관, 평성시인민위원회, 시전외봉사관리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과 일군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백송혁명사적관을 훌륭히 꾸러는데 적극 기여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만년초심으로 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백송혁명사적관을 더 잘 꾸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강사들의 수준을 무한히 높이고 강의의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며 사적관관리운영을 짜고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야 방우에 영원히 흐르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관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해설을 듣고 사적관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민주공고단체 불레쎈 《세기의 위인 김일성》 발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레일철 경속 민주공고준비위원회가 3월 26일 불레쎈 《세기의 위인 김일성》을 발행하였다.

불레쎈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인류역사는 수많은 위인들을 기록하고있지만 김일성주석처럼 세기를 이어가며 만민의 다함없는 호모를 받으시신분은

일찌기 없었다.

김일성주석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진보적인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자주시대의 개척자, 선도자이다.

그이에 의하여 인류는 자주의 세시대를 맞이하였고 역사무대에는 세계자주의의 도도한 호모가 펼쳐지게 되었다.

김일성주석은 한평생 만제자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류

자주위업을 주도하신 세계정치 회세의 성인이다.

그이의 뜨거운 인간애와 만사람을 품어주는 무한대한 포용력은 조선인민에게만 한한것이 아니었다.

환없이 고결한 그이의 품모에 세계의 정객들도 머리를 숙이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을 열어 나갈 불타는 열의

제 3 2 차 전 국 과 학 기 술 축 전 장 에 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

경쟁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입니다.》

지금 과학기술전진에서는 제 3 2 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성대히 진행되고있다.

축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에 드는 자랑찬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넘쳐 평양으로 달려온 전국각지의 과학자, 기술자들, 일군들과 근로자들뿐 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대성황을 이루며 열일 계속되고있다.

열마일 이곳을 찾았던 우리는 축전을 주최하는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기자: 발발 시문부터 년복을 아로새기는 전국과학기술축전이다. 그 나날 축전은 나라의 진보발전과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지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해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왔다고 생각된다.

부위원장 김희남: 그렇다. 지난 수십년간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과학기술축전이 주체적 위업수행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데 나라에 과학

기술중시의 기풍을 확립해나가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여올수 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시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신 뜻은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국적인 과학기술 보급과 교류의 마당인 과학기술축전을 마련하여주시고 축전의 형식과 내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수실 자체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으며 혁명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든 어머니 수령님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전국과학기술축전을 성대히 진행하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주시었다.

과학기술축전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만 하여도 제 3 2 차 전국과학기술축전조직과 관련된 여러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일일이 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백두산철재위원들의 크나큰 사랑과 세심한 보살핌속에 마련되고 새기기를 이어 진행되어온 과학기술축전은 오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첨단과학기술성과

들과 인민경제의 지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성과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바쳐오신 철재위원들의 크나큰 로고와 헌신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안고있으며 주체과학기술발전의 최전선에서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기자: 이번 전국과학기술축전에도 과학기술중시를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가 응축되어있다고 생각한다.

부장 황원복: 물론입니다.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온 나라 인민은 과학기술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맞이하려는 불타는 지향과 의지를 안고 과학인구거주의 생산현장을 비롯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구마다에서 청담과열정을 힘있게 벌려왔다.

우리 인민들이 당 제 7차대회를 승미자의 대의, 영광의 대의로 맞이하기 위한 헌신적인 열의

가, 기술자, 일군, 근로자 등 1,200여명이 참가하였다.

기자: 이번 축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한다.

책임부원 김갑훈: 이번 축전에서는 최근년간에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인민경제의 지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한 500여건의 과학기술성과가 20여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발표됨으로써 위대한 당의 현명한 명도 밑에 짧은 기간에 우리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섰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게 된다.

축전기간 현실에서 커다란 은

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기 위한 진진총총격전에 떨쳐나선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북돋아 주고 만리마중도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과학기술발전면모를 힘있게 과시하게 될것이다.

기자: 이 자리를 통하여 투쟁목표와 과업이 반대하고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주와 사대주의, 기회주의의 발악적행동이 구도에 달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찬란한이 더욱 빛날수록이 용서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자강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때 우리 식 사회주의 승리적전진을 보다 힘있게 다그쳐서 나갈것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글 본사기자 강철웅
사진 본사기자 신승혁

아침 일찍부터 구름처럼 모여 온 참가자들과 함께 우리는 제 3 2 차 전국과학기술축전장으로 들어섰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 날마다 검은 길을 따라 갈만 같지 않나? 우리 과학자들과 애국총정파 우리 인민의 숭고하고 민족적자존심을 폭발시켜 민족과 단계를 뛰어넘어 더 비약해나가기 합시다.》

인상인해를 이룬 축전장에서 우리와 만난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일군인 장태성동주는 이번 축전에 국가과학기술연구원 종합대학에서 골지골지하고 무거운 성과를 많이 내놓았다고 친절하게 소개해주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김일성종합대학전시대였다.

자연과학지구 지구도교인 김영일동주는 대학에서 《소련과 우주에 대한 연구》, 《지구관측위성에 대한 우주탐사선(산상형제)》 등 우주과학부문의 연구성과를 비롯하여 30여건의 연구논문이 과학기술상을 내놓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기술수지모형을 이용한 동공구조기술을 내놓은 첨단과학기술교류부의 성과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것이였다.

임의의 복잡한 모양을 가진 주물물도 원만한 주조할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원가를 더욱 낮추고 그 질을 높이면서도 작업할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승리의 통장훈을
첨단물과의 기상넘치는 여러 전시대들을 돌아보고

경을 개선하는 등 여러가지 수고를 하여 세계적으로도 앞선 기술로 인정되고있는 정공구조기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실리가 큰 응용과학연구성과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나온 데 대하여 놀라워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다.

정보과학대학 당직책임일군이 직접 발표한 《영향적결정의 종합정보회계》는 물론 전자자동차학부의 《정형합성가공공정의 현대화실현》, 첨단과학기술연구원 전자재료연구소의 《중성부사전방향이온관정기(황공해)》 그리고 화학부의 《나무모르기용완조성비료의 제조》 등 가치있는 성과들이 전시된 전시대물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배우며 경험을 나누고있었다.

최첨단과학기술에서 통산산의 존엄을 남김없이 펼쳐지고있는 미려한 모습들을 뒤에 남기고 우리는 국가과학기술전시대로 향하였다.

이곳 전시대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뻐하신 집적회로연구소의 개발성과도 전시되어있었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양로장통합형생체계를 연구도입한 정보과학기술연구소와 평양자외광공대 무인력이공금기를 개발도입한 111호제약소의 성과도 비롯하여 훌륭한 연구성과들이

있었다.

인민의 기쁨넘치는 여러 공헌, 유년지들이 남긴 건설공헌무려 교수 박사 리희공공부를 비롯한 교원, 연구자들의 피하는 사색과 탐구의 자욱, 백두산영웅정년 3호발달선의 겨울철공사를 성파적으로 보강해준 기여한 건축예비학부 전제개발연구소 소장 윤관철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의 열의가 깃든 성과들은 또 얼마나 훌륭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명예총장으로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문명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가고있는 평양전총총대학 교원, 연구자로서였다.

물론 축전에서는 매개의 과학기술성과에 대하여 대단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세상에 내놓은 성과들이 우리의 혁명의 강령인 혁신, 개혁, 혁신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지지고 기술로 보았을 때는 모두의 하나같은 지향과 열정이 어떻게 차이점을 들수 있나.

그렇다. 최첨단물과의 기성이 이바지한 전시대물마다에서 우리는 보았다.

과학기술발전의 기수, 전총총들의 하나같은 지향과 열정이 동력이 되고 가속기가 되어 승리의 통장훈을 다발하고, 번발적으로 부르는 사회주의강국을 향하여 전진으로 달려가는 과학기술의 기만차들!

본사기자 려병희

70 나이의 발명가

황해남도 태백군인원위원 기술비전 비공공공무는 올해 77살이다. 그는 10여년간 태백군인원위원의 위원장으로 시업하였다. 이제 나이도 많아 여성을 편안히 지낼것을 연고하여 일군들의 성의도 다하고 그는 자진해서 군인원위원 기술비전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한생

평북종합대학 박사인 원장 김광림동주는 이번 축전에 우리 나라에 흔한 공업제품으로 에너지를 절약효과가 높은 열복사장광열복사체를 제조하는 기술을 내놓았다. 이 성과로 하여 열처리비용을 비롯한 공업도공에서 에너지를 절약한다 4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되게 되었다.

6년간 첫 연구성과를 가지

에너지를 절약하고 현대화된 제품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평안남도제철관리국은 제 2 8 차 중앙과학기술축전(당시)에서 처음으로 단체 1명의 과학기술발전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후에도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는 원이 3번이나 이번 제 3 2 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 단위에서는 생애의

기술을 높여라 하였다. 이 성과는 단위의 당, 행정 책임일군들이 언제나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온 과정이 이룩된것이며 광범한 대중을 과학기술발전의 주인공, 당대로 키워온 꾸준한 노력의 응당한 결실이다.

이번 제 3 2 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 단위에서는 생애의

기술을 높여라 하였다. 이 성과는 단위의 당, 행정 책임일군들이 언제나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온 과정이 이룩된것이며 광범한 대중을 과학기술발전의 주인공, 당대로 키워온 꾸준한 노력의 응당한 결실이다.

이번 제 3 2 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 단위에서는 생애의

당의 뜻을 받들고 그는 10여년간에 걸쳐 밭, 보리이식재배기술을 연구하면서이 전국에 일반화하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이번 제 3 2 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 출품한 열복사장광열복사체가 그와 같은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을 기울이며 자기 지향의 열정과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국산화를 실현한 새 제품이다.

그는 기술비전으로 일하면서 이번까지 4번에 걸쳐 전국과학기술축전에 참가하였다.

열복사체, 무기질결정체, 내열성열복사체, 열복사장광열복사체... 그 과정에 열복사의 단열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더더욱 자기의 진보성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 성과는 당에 기쁨을 드렸다.

대출력방출설비를 내놓았다. 전열변압기와 출력변성기를 쓰지 않으면서도 방출의 출력과 효율을 높일수 있는 경량화된 생명의 설비는 시장들을 울려주었다.

이 성과에 대하여 단위의 일군들과 책임일군들은 올해도 또다시 단체 1명을 생위함으로써 5번째 연속을 기록할 열의에 충당되어 있다.

본사기자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이리로

평성시 중립동 25인민반 김리향 가정

평성시에 살고있는 영애군인반인 방두산, 신복실동무가 김리향동무의 가정과 인연을 맺은지도 어느덧 10여년이 되는 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에 세겨진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은 그 얼마인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영애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피고 돌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어느날 김리향동무는 평안남도인민방위에서 입직서류를 받고있는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가 입직했다는 호소에 낮모를 한 내성이 침대를 마주하고 누웠었다. 어머니로부터 그가 영애군인이라는것과 그의 남편도 역시 영애군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김리향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김리향동무는 조국보위초소에서 있던 제대군인이었다. 그래서 그전지 그 녀성이 군사부서 시절의 전우처럼 여겨졌다.

그로부터 얼마후 방두산, 신복실동무가 살고있는 집으로 김리향동무와 그의 남편인 리성길동무가 들어왔다. 그들은 집안의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보며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구제하려고 할아보았다.

어려가지 생활용품과 부엌세안줄, 보양제와 부식성분을 안고 매달이 찾아오는 김리향동무의 가정의 성의는 끝이 없었다. 그녀는 사이에 이들을 한시종처럼 가짜와였다. 김리향동무의 동생인 김일향동무와 그의 남편도 정정을 할지였다. 이렇게 한해 두 해 후더는 정을 나누던 어느날이었다.

김리향동무의 가정에서는 해마다 지겨울까 마친한 많은 식도품을 정정로뵙고 영애군인들에게 안겨주고있다.

얼마나 돋보이는 가정인가. 이런 가정들이 많아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이리의 화연에는 아름다운 생활의 향기가 더욱 넘쳐나는데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조경철

《세월》호대참사를 빚어낸 살인악마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담화

발적인 사고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철두철미 박근혜역도와 보수세력에 의해 산생된 고의적인 인재이며 희생양이다.

다만 나라에서 과학이나 다른 어떤 산업에 있어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과학적 사실과 과학적 논리를 무시하고 고의적인 착취와 착취를 행하는 것은 과학의 본질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은근 거짓》은 국민의 눈을 감도록 하는 막아도 진실은 드러난다. 그 규탄하면서 사법수습과 권불사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원만자처벌을 요구해나서고있다.

특히 4.16가톨릭대학 유가족들과 박근혜 《정인》회진 비상국민행동을 비롯한 투쟁전선들은 《박근혜(정인)》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대참사, 《박근혜(정인)》가 강행한 《5.18학살》, 《구조하지 못한것》이 아니라 구조하지 않은것》이라고 격분해서 리드미있게 역적행위를 단죄하는 구조활동을 벌리도록 한것이 아니라 침묵현장을 촬영한 종업상부의 울려보내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내린것이 바로 박근혜역적이다.

사고현장에 먼저 나타난 퍼퓸해양철은 구조활동을 벌일 대신 침묵하는 《세월》호를 고안에서 철회하면서 그것을 촬영하는데만 급급하였으며 이런 행동에 《가만히 있으라》,

《이동하지 말라.》고 지시하고는 도적고양이처럼 물에 빠져서 빠져서선 선장과 선원들만 처신도 달아났다.

구조에 동원된 피의공부들은 역시 물속에 허둥거리고 물살이 빠르더니 워니 허둥거리고 구조로 구조를 태공하였다.

특히 박근혜는 수백명의 생명을 잃어 손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들이 부러지도록 선실벽을 뚫고 두 배로 아래로 구원을 호소할 때 헬기비행으로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도 무려 7시간동안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팔방이 들어 박히 마귀같은 상공의 주물살을 퍼고 까마귀등이같은 피리를 울어 울리는 등 더러운 몸통이리를 지타당하며 제물장만 보았다.

침몰하는 배를 감쪽같이 생존자들을 무리죽음을 당한것은 전적으로 박근혜역적이 빚어낸 살인참극이다.

그후에도 박근혜와 보수세력은 사고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한사코 방해하며 피악을 덧밧었다.

역적행위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회명도 중요하지만 정부관단언이 필요하다.》, 《사실은 인양하며(정부) 책임은 커진다.》고 떠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제정과 《세월》호조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약탈하게 가로막고 《세월》호인양

남조선평화를 침몰하는 《세월》호처럼 만든 극악무도한 행렬한인 박근혜와 보수세력의 추악한 범죄는 절대로 가려줄수 없다.

지금 박근혜는 역사와 인민의 심판을 받고 평과대에서 벗어나 감옥에 처박혔다. 이것도 추악한 전횡을 부지하면서 피의 부수를 하겠다고 이빨을 갈고있고 억도적인 공판지침인 보수세력 역시 온갖 권모술수와 파면지시 민심과 여론을 거만하고 우롱하면서 제2의 박근혜 《정인》을 만들어내기 위해 피눈이 되어 넘겨주고 있다.

이러한 반인륜적행위, 살인악마들의 반적적폭행을 수수방관한단위도 제2, 제3의 《세월》호참사가 계속 벌어지고 남조선이 전대미문의 생지적으로도 대추 현치적전란을 빚어내는것은 불보도 변한다.

박근혜를 철위대에서 끌어내리고 강우에 처넣은것은 새로운 삼, 새 사회에로의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 각계층은 창다른 삼과 준엄을 위하여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할수 있게 최대한 비타당물속에 살해로 수형된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을 풀어주어야 하며 살인마무리인 역적대당을 박근혜와 함께 단호히 때려부러야 할것이다.

주제106(2017)년 4월 7일
평 양



